

제4장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 [110516].hwp

1. 대내·외적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

1) 거시적 여건변화와 전망

■ 기후변화를 고려한 성장전략으로 녹색성장 대두

- 2008년도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의무감축기간이 시작되면서 탄소거래시장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또한 기후변화는 세계경제의 신조류이며 이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글로벌 차원의 트렌드로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당면한 중요한 대외환경의 변화임.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녹색성장을 위한 당진의 관심과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될 사항임

■ 저탄소 녹색성장을 바탕으로한 신국가 발전패러다임

- 현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Low-Carbon Green Growth)'이 향후 한국경제의 비전임과 동시에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 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경제·산업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의 선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것임. 이후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녹색뉴딜사업'(핵심사업 9개, 연계사업 27개)을 SOC,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 친환경·녹색생활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기에 이룸. 이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외적 여건변화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4대강 종합정비사업

- 기후변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 빈발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국민소득 증대로 수상레저·문화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킬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임.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수·치수·환경·친수·지역발전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 강별로 일관되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됨

2) 당진군 여건변화와 전망

■ 비오톱 지도의 작성

- 2009년부터 비오톱(생태지도) 작성 사업이 시작되면서 당진군 전체를 대상으로 1:1,000 축적의 비오톱지도가 만들어짐. 토지이용, 토지피복, 식생현황, 동물상 등 주제도를 종합한 비오톱 유형도와 평가도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 계획 수립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 동시에, 당진군 전역의 환경보전계획도 작성을 위한 토대로 제공되어짐. 이에 현재 작업중인 비오톱지도와 연계시켜 환경계획을 수립하였음

■ 군민들의 환경오염 논란 증대

- 주요 도로변 쓰레기, 축산폐수 공공수역 유출, 산업단지 인근 하천 오염 등 당진이 미지에 큰 훼손을 주는 환경오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및 ‘축산폐수 공공수역유출사건’ 등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변 인근마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음

■ 부문별 개발사업의 추진

- 산업단지 입지예정, 도시개발사업 등 문화관광 관련 개발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음. 또한 당진-대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국도 32호선 확장 및 포장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

2. ⁵당진군민 환경의식 조사⁰제1장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_[110516].hwp

1) 조사의 개요

(1) 조사목적

- 본 조사의 목적은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당진군민의 의식을 분석·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당진군의 환경개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 본 조사에서는 당진군민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포괄적 인식,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정도 등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로 구분하여 조사함
-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군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아름다운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군민환경교육 및 실천방향을 제시

(2) 조사대상

- 당진군 전지역(3읍9면)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함

(3) 조사내용

■ 설문조사 문항작성 및 수정보완

- 설문조사기간
 - 문항작성 기간 : 2010년 7월
 - 내용보완 기간 : 2010년 8월
 - 설문조사 및 분석기간 : 2010년 9월 ~ 2010년 10월
-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응답자 본인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설문지 문항 작성에 신중을 기함
- 따라서 작성된 설문지를 토대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 항목에 오류가 없는지,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에 잘 부합되도록 모든 내용이 제대로 포함되었는지를 확인 후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을 반영하여 설문지 내용이 보다 충실해지도록 의견 수렴과정을 거침

■ 설문조사 문항

- 질문항목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하여 작성
 - － 당진군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조사
 - －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조사
 - －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조사
 - － 당진군의 「지방의제21」에 관련된 조사
 - － 통계처리를 위한 설문 응답자 개인적 일반사항 조사

(4) 조사방법

- 설문조사는 당진군청의 협조를 받아 인구비례에 따라 읍면별로 비례할당 후,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
- 분석은 각 응답자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로 구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분석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2.0K를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상관관계 분석 등의 기법으로 분석

2) 설문분석내용

(1) 설문응답자의 일반사항

■ 설문지의 개인적 일반사항 중에서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 직업의 분포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 56.3%, 여자 43.7%임
- 연령별 비율은 만20~29세 12.8%, 만30~39세 25.6%, 만40~49세 27.8%, 만50~59세 21.5%, 60세 이상 12.2%임
- 당진읍 23.7%, 신평면 12.9%, 송악읍 10.7%, 합덕읍 10.5%, 석문면 7.4%, 고대면 6.6%, 우강면 6.6%, 송산면 6.1%, 면천면 5.0%, 순성면 5.0%, 정미면 4.2%, 대호지면 1.3% 순으로 나타났음
- 직업의 분포 비율은 농업, 임업, 축산업 31.0%, 사무직·기술직 20.5%, 전업주부 18.6%, 자영업 7.8%, 기타 6.3%, 무직 4.8%, 관리직 3.5%, 학생 3.5%, 기능직 2.4%, 군인 1.0%, 전문직 0.8%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보였으며, 농

9. 임업, 축산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_[110516].hwp

<표 4-1> 설문응답자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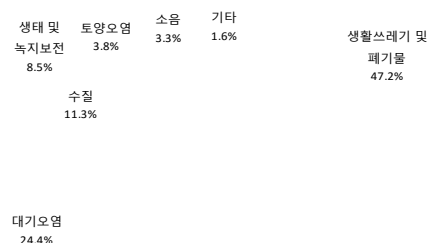
구 분		빈도수	비율(%)
성별	남자	527	66.2
	여자	269	33.8
연령	만20세 미만	3	0.4
	만20~29세	160	20.1
	만30~39세	167	21.0
	만40~49세	216	27.1
	만50~59세	173	21.7
	만60세 이상	77	9.7
직업	농업,임업,축산업	246	30.9
	전문직	12	1.5
	자영업	43	5.4
	기능직	25	3.1
	사무·기술직	314	39.4
	관리직	30	3.8
	학생	18	2.3
	가정주부	63	7.9
	무직	26	3.3
	기타	19	2.4

<표 4-2> 설문지 배포 비율

구 분		조사표본수	비율(%)
거주지역	당진읍	151	23.7
	합덕읍	67	10.5
	송악읍	68	10.7
	고대면	42	6.6
	석문면	47	7.4
	대호지면	8	1.3
	정미면	27	4.2
	면천면	32	5.0
	순성면	32	5.0
	우강면	42	6.6
	신평면	82	12.9
	송산면	39	6.1
계		63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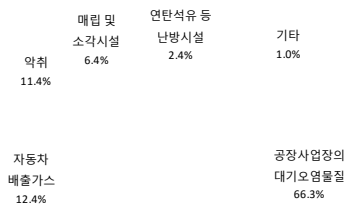
(2) 환경오염 인식도

- 당진군의 환경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47.2%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대기오염 24.4%, 수질오염 11.3%, 생태 및 녹지보전문제 8.5%, 토양오염 3.8%, 소음 3.3%, 기타 1.6% 순으로 응답
- 당진군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생활쓰레기와 같은 생활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생활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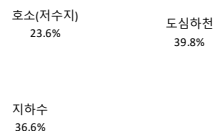


■ 현재 당진군의 각 분야별 오염 상태를 분석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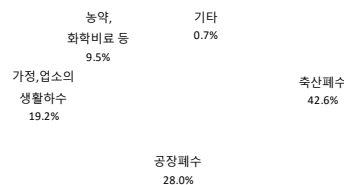
- 대기오염도는 ‘약간 심각’ 48.5%, ‘보통’ 24.7%, ‘매우 심각’ 19.2%, ‘별로 심각하지 않음’ 5.7%, ‘전혀 심각하지 않음’ 1.9% 순으로 응답하여, 체감하는 대기오염도가 높음
- 대기질 악화의 주원인은 ‘공장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동차 배출 가스’ 12.4%, ‘악취’ 11.4%, ‘매립소각시설’ 6.4%, 연탄석유 등 난방시설 2.4%, 기타 1.0% 순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대기질 관리를 위해 공장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와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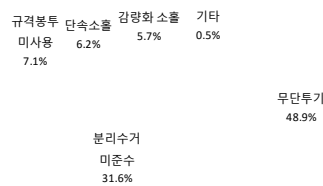
- 수질오염도는 ‘약간심각’ 54.2%, ‘보통’ 23.0%, ‘매우 심각’ 14.3%, ‘별로 심각하지 않음’ 7.3%, ‘전혀 심각하지 않음’ 1.3% 순으로 응답하여, 체감하는 수질오염도가 높은 상태임
- 수질오염 장소는 도심하천 39.8%, 지하수 39.6%, 호소(저수지) 23.6%의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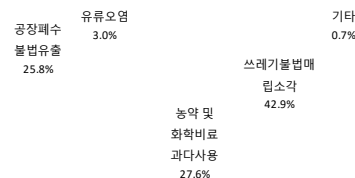
-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한 질문에 축산폐수 42.6%, 공장폐수 28.0%, 가정·업소의 생활하수 19.2%, 농약 및 화학비료 9.5%, 기타 0.7% 순으로 나타나 축산폐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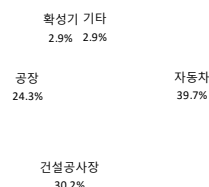
- 63 제4장 환경여건 변화의 전망 [110516].hwp
- 폐기물오염 정도는 ‘약간심각’ 51.0%, ‘보통’ 23.6%, ‘별로 심각’ 16.3%, ‘별로 심각하지 않음’ 8.2%, ‘전혀 심각하지 않음’ 0.8% 순으로 응답하여, 체감하는 폐기물로 인한 오염도가 높은 상태임
 - 그 원인은 폐기물의 무단투기 48.9%, 폐기물 분리수거 미 준수 31.6%, 규격봉투 사용의 미 준수 7.1%, 행정당국의 단속 소홀 6.2%, 폐기물 감량화 소홀 5.7%, 기타 0.5% 순으로 지적
 - 따라서 생활쓰레기의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 투기 근절과 분리수거를 위해 환경 교육과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이 전제되어야 함



- 토양오염도는 ‘약간심각’ 47.0%, ‘보통’ 30.8%, ‘별로 심각하지 않음’ 11.7%, ‘매우 심각’ 9.9%, ‘전혀 심각하지 않음’ 0.6% 순으로 응답하여, 체감하는 토양오염에 대한 체감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임
 - 토양오염원은 쓰레기 불법매립 및 소각 42.9%, 농약 및 화학비료 과다사용 27.6%, 공장폐수의 불법유출 25.8%, 유류오염 3.0%, 기타 0.7% 순으로 나타나, 불법 매립·소각에 대한 지도와 대책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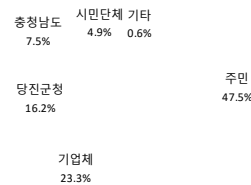
- 소음의 경우는 ‘약간심각’ 42.5%, ‘보통’ 29.5%, ‘별로 심각하지 않음’ 13.3%, ‘매우 심각’ 12.2%, ‘전혀 심각하지 않음’ 2.4% 순으로 응답하여, 체감하는 소음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상태임
 - 소음발생원인은 자동차 39.7%, 건설공사장 30.2%, 공장 24.3%, 확성기 2.9%, 기타 2.9% 순으로 나타나 자동차 교통소음과 건설현장의 소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64 (3) 환경문제의 해결 모색 09_제4장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_[110516].hw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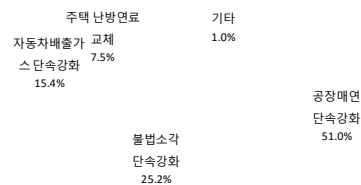
■ 환경문제 해결 주체

-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주민 47.5%, 기업체 23.3%, 당진군청 16.2%, 충청남도 7.5%, 기타 0.6% 순으로 응답
- 당진군민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기업체와 당진군청이 함께 협력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또한, 당진군의 법적, 제도적, 예산확보 한계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와 중앙정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대기오염방지 대책

- 당진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공장 매연 단속강화 51.0%, 불법소각행위 단속강화 25.2%,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15.4%, 주택 등의 난방연료 교체 7.5%, 기타 1.0% 순으로 응답하였음
- 따라서 당진군은 공장매연과 불법소각에 대한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및 단속정책으로 대기오염을 줄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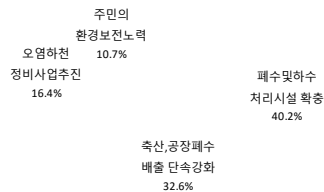


■ 수질오염방지 대책

-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확충 40.2%, 축산·공장폐수 배출행위 단속강화 32.6%, 오염하천의 정비사업 지속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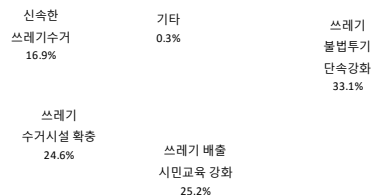
65진 16.4%, 주민의 환경보전 의지 10.7%, 환경의 중요성 대하있는전망_[110516].hwp

- 따라서 폐수 및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한
-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당진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생활오수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당진의제21’에서 실천지침으로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생활쓰레기 환경오염 방지 대책

- 생활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 33.1%,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시민교육 강화 25.2%, 수거시설 확충 24.6%, 신속한 쓰레기 수거 16.9%, 기타 0.3% 순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단속정책과 아울러 생활쓰레기에 대한 시민교육 강화라는 실천이 중요하며, 생활쓰레기의 분리배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분리 및 수거시스템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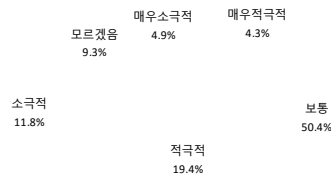
■ 당진군에서 유념해야 할 환경요소

- 당진군에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유념해야 할 요소는 쓰레기 및 폐기물 32.8%, 대기오염 23.3%, 수질오염 21.4%, 생태 및 녹지보전 13.1%, 토양오염 5.0%, 소음 4.6% 기타 0.9% 순으로 나타나 폐기물 분야와 대기분야에 보다 강도 높은 환경대책이 필요함

66 09_제4장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_[110516].hwp
(4) 중장기 환경비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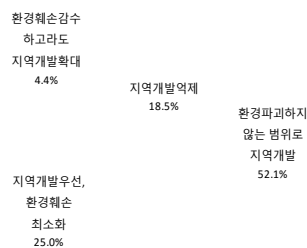
■ 당진군에서 유념해야 할 환경요소

- 당진군청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정도에 대한 질문은, ‘보통’ 50.4%, ‘적극적’ 19.4%, ‘소극적’ 11.8%, ‘모르겠음’ 9.3%, ‘매우 소극적’ 4.9%, ‘매우 적극적’ 4.3%로 비교적 당진군청의 적극성을 지적하였음



■ 개발과 보전의 조화

- 장래 환경보전을 위하여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개발 추진’ 52.1%, ‘지역개발을 우선 추진하되 환경훼손을 최소화’ 25.0%, ‘환경보전을 위해 지역개발 억제’ 18.5%, ‘환경훼손을 감수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개발확대’ 4.4% 순으로 응답하여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의 개발을 선호하고 있음
- 따라서 당진군에서는 환경정책을 가능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과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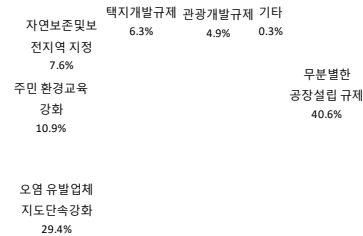


■ 환경보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

- 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무분별한 공장설립 규제 40.6%, 오염유발업체 지도단속 강화 29.4%, 주민 환경교육 강화 10.9%, 자연 보존 및 보전지역 지정 7.6%, 아파트·상가 등 택지개발 규제 6.3%, 숙박·음식점

67 관광개발규제 4.9%, 기타 0.9% 순으로 응답하였음 변화와 전망_[110516].hw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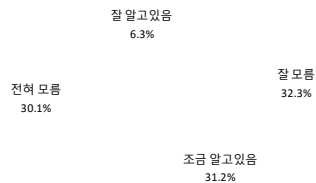
- 따라서, 대기와 수질오염과 밀접히 관련된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시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병행하여야 함



(5) 당진군 지방의제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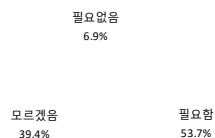
■ 당진군 지방의제21 인식도

- 당진군 지방의제21에 대한 당진군민의 인식 정도는 ‘잘 모름’ 32.3%, ‘조금 알고 있음’ 31.2%, ‘전혀 모름’ 30.1%, ‘잘 알고 있음’ 6.3% 순으로 응답
- 전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어 당진군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을 위해 지방의제21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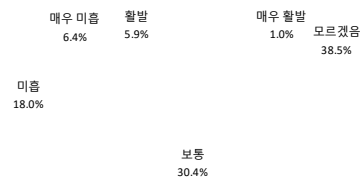
■ 당진군 지방의제21 필요성

- 당진군 지방의제21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필요함’ 53.7%, ‘모르겠음’ 39.4%, ‘필요 없음’ 6.9% 순으로 응답함



■ 당진군 지방의제21 활동정도

- 당진군 지방의제21의 활동정도에 대한 설문결과, ‘모르겠음’ 38.5%, ‘보통’ 30.4%, ‘미흡’ 18.0%, ‘매우 미흡’ 6.4%, ‘활발’ 5.9%, ‘매우 활발’ 1.0% 순으로 나타남
- 모르겠다는 반응이 가장 많은 것은 당진군 지방의제21의 비교적 낮은 인지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며, 향후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과 홍보가 필요함



(6) 당진군 읍면별 분석

- 당진군의 읍면별 의식성향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당진군 환경개선에 자료로 활용함

■ 읍면별 환경문제 인식

- 전반적으로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에 대한 환경문제 인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면천면과 송산면의 경우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문제 인식도가 높았음

표 4-3> 부문별 종합 09_제4장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_[110516].hwp

구 분	당진	합덕	송악	고대	석문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	우강	신평	송산	전체
기타	빈도	1.0	0.0	2.0	0.0	0.0	0.0	1.0	1.0	0.0	0.0	5.0	10.0
	거주지역의 %	0.7	0.0	2.9	0.0	0.0	0.0	3.7	3.1	0.0	0.0	6.1	1.6
	전체 %	0.2	0.0	0.3	0.0	0.0	0.0	0.2	0.2	0.0	0.0	0.8	1.6
생태 및 녹지 보전	빈도	11.0	5.0	11.0	5.0	3.0	0.0	2.0	1.0	6.0	3.0	2.0	54.0
	거주지역의 %	7.3	7.5	16.2	11.9	6.4	0.0	7.4	3.1	18.8	7.1	2.4	12.8
	전체 %	1.7	0.8	1.7	0.8	0.5	0.0	0.3	0.2	0.9	0.5	0.3	8.5
소음	빈도	5.0	2.0	5.0	0.0	3.0	0.0	0.0	1.0	2.0	0.0	1.0	21.0
	거주지역의 %	3.3	3.0	7.4	0.0	6.4	0.0	0.0	3.1	6.3	0.0	1.2	5.1
	전체 %	0.8	0.3	0.8	0.0	0.5	0.0	0.0	0.2	0.3	0.0	0.2	3.3
토양 오염	빈도	5.0	1.0	3.0	3.0	0.0	1.0	1.0	1.0	0.0	3.0	6.0	24.0
	거주지역의 %	3.3	1.5	4.4	7.1	0.0	12.5	3.7	3.1	0.0	7.1	7.3	3.8
	전체 %	0.8	0.2	0.5	0.5	0.0	0.2	0.2	0.2	0.0	0.5	0.9	3.8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	빈도	73.0	25.0	39.0	22.0	25.0	6.0	20.0	11.0	11.0	14.0	41.0	300
	거주지역의 %	48.7	37.3	57.4	52.4	53.2	75.0	74.1	34.4	34.4	33.3	50.0	47.2
	전체 %	11.5	3.9	6.1	3.5	3.9	0.9	3.1	1.7	1.7	2.2	6.4	47.2
수질	빈도	14.0	15.0	2.0	5.0	1.0	0.0	2.0	4.0	4.0	11.0	11.0	72.0
	거주지역의 %	9.3	22.4	2.9	11.9	2.1	0.0	7.4	12.5	12.5	26.2	13.4	11.3
	전체 %	2.2	2.4	0.3	0.8	0.2	0.0	0.3	0.6	0.6	1.7	1.7	11.3
대기 오염	빈도	41.0	19.0	6.0	7.0	15.0	1.0	1.0	13.0	9.0	11.0	16.0	155.0
	거주지역의 %	27.3	28.4	8.8	16.7	31.9	12.5	3.7	40.6	28.1	26.2	19.5	41.0
	전체 %	6.4	3.0	0.9	1.1	2.4	0.2	0.2	2.0	1.4	1.7	2.5	24.4
전체	빈도	150.0	67.0	68.0	42.0	47.0	8.0	27.0	32.0	32.0	42.0	82.0	636.0
	거주지역의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체 %	23.6	10.5	10.7	6.6	7.4	1.3	4.2	5.0	5.0	6.6	12.9	100.0

■ 읍면별 유념해야 할 환경요소

- 환경개선을 위해 유념해야 할 환경요소는 쓰레기 및 폐기물의 요소는 송악면, 고대면, 석문면, 대호지면, 정미면, 면천면이 높게 나타났고, 수질오염요소는 합덕읍, 우강면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오염요인은 당진읍, 면천면, 순성면, 송산면으로 나타났음

<표 4-4> 부문별 종합

단위 : %

구 분		당진	합덕	송악	고대	석문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	우강	신평	송산	전체
기타	빈도	1.0	0.0	0.0	0.0	0.0	0.0	1.0	0.0	0.0	1.0	1.0	2.0	6.0
	거주지역의 %	0.7	0.0	0.0	0.0	0.0	0.0	3.7	0.0	0.0	2.4	1.2	5.1	0.9
	전체 %	0.2	0.0	0.0	0.0	0.0	0.0	0.2	0.0	0.0	0.2	0.2	0.3	0.9
생태 및 녹지보전	빈도	22.0	5.0	21.0	5.0	5.0	2.0	5.0	1.0	3.0	4.0	5.0	5.0	83.0
	거주지역의 %	14.7	7.5	30.9	11.9	10.6	25.0	18.5	3.1	9.4	9.5	6.1	12.8	13.1
	전체 %	3.5	0.8	3.3	0.8	0.8	0.3	0.8	0.2	0.5	0.6	0.8	0.8	13.1
쓰레기 및 폐기물	빈도	42.0	12.0	25.0	16.0	20.0	3.0	13.0	11.0	5.0	11.0	34.0	10.0	202.0
	거주지역의 %	28.0	17.9	36.8	38.1	42.6	37.5	48.1	34.4	15.6	26.2	41.5	25.6	31.8
	전체 %	6.6	1.9	3.9	2.5	3.1	0.5	2.0	1.7	0.8	1.7	5.3	1.6	31.8
토양오염	빈도	5.0	4.0	3.0	0.0	4.0	2.0	1.0	2.0	2.0	3.0	6.0	0.0	32.0
	거주지역의 %	3.3	6.0	4.4	0.0	8.5	25.0	3.7	6.3	6.3	7.1	7.3	0.0	5.0
	전체 %	0.8	0.6	0.5	0.0	0.6	0.3	0.2	0.3	0.3	0.5	0.9	0.0	5.0
소음	빈도	7.0	7.0	4.0	0.0	1.0	0.0	0.0	1.0	5.0	1.0	2.0	1.0	29.0
	거주지역의 %	4.7	10.4	5.9	0.0	2.1	0.0	0.0	3.1	15.6	2.4	2.4	2.6	4.6
	전체 %	1.1	1.1	0.6	0.0	0.2	0.0	0.0	0.2	0.8	0.2	0.3	0.2	4.6
수질오염	빈도	27.0	23.0	10.0	12.0	4.0	0.0	4.0	6.0	7.0	13.0	20.0	10.0	136.0
	거주지역의 %	18.0	34.3	14.7	28.6	8.5	0.0	14.8	18.8	21.9	31.0	24.4	25.6	21.4
	전체 %	4.2	3.6	1.6	1.9	0.6	0.0	0.6	0.9	1.1	2.0	3.1	1.6	21.4
대기오염	빈도	46.0	16.0	5.0	9.0	13.0	1.0	3.0	11.0	10.0	9.0	14.0	11.0	148.0
	거주지역의 %	30.7	23.9	7.4	21.4	27.7	12.5	11.1	34.4	31.3	21.4	17.1	28.2	23.3
	전체 %	7.2	2.5	0.8	1.4	2.0	0.2	0.5	1.7	1.6	1.4	2.2	1.7	23.3
전체	빈도	150.0	67.0	68.0	42.0	47.0	8.0	27.0	32.0	32.0	42.0	82.0	39.0	636.0
	거주지역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	23.6	10.5	10.7	6.6	7.4	1.3	4.2	5.0	5.0	6.6	12.9	6.1	100.0

■ 읍면별 환경시책 방향

- 환경문제를 둘러싼 보전과 개발의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환경보전을 고려한 지역개발의 방향을 선호하였고, 대호지면의 경우 지역개발을 보다 우선시하면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표 4-5> 부문별 종합

단위 : %

구 분		당진	합덕	송악	고대	석문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	우강	신평	송산	전체
환경훼손감수, 지역개발확대	빈도	4.0	1.0	4.0	4.0	6.0	0.0	2.0	1.0	0.0	1.0	5.0	0.0	28.0
	거주지역의 %	2.7	1.5	5.9	9.5	12.8	0.0	7.4	3.1	0.0	2.4	6.1	0.0	4.4
	전체 %	0.6	0.2	0.6	0.6	0.9	0.0	0.3	0.2	0.0	0.2	0.8	0.0	4.4
지역개발우선, 환경훼손 최소화	빈도	41.0	22.0	13.0	7.0	9.0	4.0	8.0	10.0	7.0	9.0	21.0	7.0	158.0
	거주지역의 %	27.7	33.3	19.1	16.7	19.1	50.0	29.6	31.3	21.9	21.4	25.6	17.9	25.0
	전체 %	6.5	3.5	2.1	1.1	1.4	0.6	1.3	1.6	1.1	1.4	3.3	1.1	25.0
환경보전을 고려한 지역개발	빈도	78.0	31.0	29.0	25.0	22.0	3.0	14.0	13.0	17.0	27.0	44.0	27.0	330.0
	거주지역의 %	52.7	47.0	42.6	59.5	46.8	37.5	51.9	40.6	53.1	64.3	53.7	69.2	52.1
	전체 %	12.3	4.9	4.6	3.9	3.5	0.5	2.2	2.1	2.7	4.3	7.0	4.3	52.1
지역개발억제	빈도	25.0	12.0	22.0	6.0	10.0	1.0	3.0	8.0	8.0	5.0	12.0	5.0	117.0
	거주지역의 %	16.9	18.2	32.4	14.3	21.3	12.5	11.1	25.0	25.0	11.9	14.6	12.8	18.5
	전체 %	3.9	1.9	3.5	0.9	1.6	0.2	0.5	1.3	1.3	0.8	1.9	0.8	18.5
전체	빈도	148.0	66.0	68.0	42.0	47.0	8.0	27.0	32.0	32.0	42.0	82.0	39.0	633.0
	거주지역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	23.4	10.4	10.7	6.6	7.4	1.3	4.3	5.1	5.1	6.6	13.0	6.2	100.0

■ 읍면별 당진군 지방의제21 인식

- 당진군 의제21에 대한 읍면별 인식은 의제21의 활동정도를 모른다는 지역은 합덕읍, 고대면, 석문면, 순성면, 신평면으로 나타났고, 활동이 미흡하다는 응답은 송악읍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읍면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음

<표 4-6> 부문별 종합

단위 : %

구 분		당진	합덕	송악	고대	석문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	우강	신평	송산	전체
모르겠음	빈도	46.0	27.0	16.0	30.0	21.0	1.0	8.0	8.0	13.0	17.0	44.0	11.0	242.0
	거주지역의 %	31.1	40.9	23.5	71.4	44.7	12.5	29.6	25.0	41.9	40.5	53.7	30.6	38.5
	전체 %	7.3	4.3	2.5	4.8	3.3	0.2	1.3	1.3	2.1	2.7	7.0	1.7	38.5
매우미흡	빈도	17.0	0.0	1.0	1.0	4.0	1.0	0.0	4.0	4.0	3.0	4.0	1.0	40.0
	거주지역의 %	11.5	0.0	1.5	2.4	8.5	12.5	0.0	12.5	12.9	7.1	4.9	2.8	6.4
	전체 %	2.7	0.0	0.2	0.2	0.6	0.2	0.0	0.6	0.6	0.5	0.6	0.2	6.4
미흡	빈도	27.0	5.0	28.0	4.0	5.0	2.0	4.0	5.0	8.0	4.0	14.0	7.0	113.0
	거주지역의 %	18.2	7.6	41.2	9.5	10.6	25.0	14.8	15.6	25.8	9.5	17.1	19.4	18.0
	전체 %	4.3	0.8	4.5	0.6	0.8	0.3	0.6	0.8	1.3	0.6	2.2	1.1	18.0
보통	빈도	45.0	26.0	20.0	5.0	11.0	3.0	14.0	11.0	5.0	18.0	20.0	13.0	191.0
	거주지역의 %	30.4	39.4	29.4	11.9	23.4	37.5	51.9	34.4	16.1	42.9	24.4	36.1	30.4
	전체 %	7.2	4.1	3.2	0.8	1.7	0.5	2.2	1.7	0.8	2.9	3.2	2.1	30.4
활발	빈도	10.0	8.0	3.0	1.0	4.0	1.0	1.0	4.0	1.0	0.0	0.0	4.0	37.0
	거주지역의 %	6.8	12.1	4.4	2.4	8.5	12.5	3.7	12.5	3.2	0.0	0.0	11.1	5.9
	전체 %	1.6	1.3	0.5	0.2	0.6	0.2	0.2	0.6	0.2	0.0	0.0	0.6	5.9
매우활발	빈도	3.0	0.0	0.0	1.0	2.0	0.0	0.0	0.0	0.0	0.0	0.0	0.0	6.0
	거주지역의 %	2.0	0.0	0.0	2.4	4.3	0.0	0.0	0.0	0.0	0.0	0.0	0.0	1.0
	전체 %	0.5	0.0	0.0	0.2	0.3	0.0	0.0	0.0	0.0	0.0	0.0	0.0	1.0
전체	빈도	148.0	66.0	68.0	42.0	47.0	8.0	27.0	32.0	31.0	42.0	82.0	36.0	629.0
	거주지역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	23.5	10.5	10.8	6.7	7.5	1.3	4.3	5.1	4.9	6.7	13.0	5.7	100.0

3) 결론 및 정책제언

- 당진군은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을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당진군에서는 쓰레기와 폐기물, 대기오염, 수질오염 분야의 순서로 환경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분야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 군민은 공장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은 대기오염물질과 자동차배출가스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장 매연 단속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으로는 축산폐수, 공장폐수, 가정업소의 생활하수 순서로 조사됨.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신설과 확충이 요구되며, 축산·공장폐수 배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폐기물오염의 주된 원인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폐기물 분리수거 미 준수로 조사됨. 폐기물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토양오염의 주된 원인은 쓰레기 불법매립 및 소각, 농약 및 화학비료 과다사용, 공장폐수의 불법유출의 순서로 조사됨. 따라서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매립 및 소각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소음의 경우, 자동차 교통소음과 건설현장의 소음이 주된 오염원으로 조사되어, 이 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당진군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청정한 환경유지와 생태보전에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조사됨
 - 군민들은 지방의제21의 활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방의제21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당진군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당진군의 환경보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무분별한 공장설립을 규제하고, 오염유발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주민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7. 당진군 환경잠재력(SWOT) 분석 변화와 전망_[110516].hwp

1) 강점(Strength)

■ 수려한 자연자원 보유

- 충남 해양관광의 보고, 아미산, 대호호, 삼교호 등을 비롯한 수려한 자연자원 보유

■ 다양한 생물서식

- 당진군은 멸종위기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상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함



<샙>



<흰꼬리수리>



<금개구리>

[그림 4-1] 멸종위기종

2) 약점(Weakness)

■ 오염원 증가 및 밀집으로 인한 오염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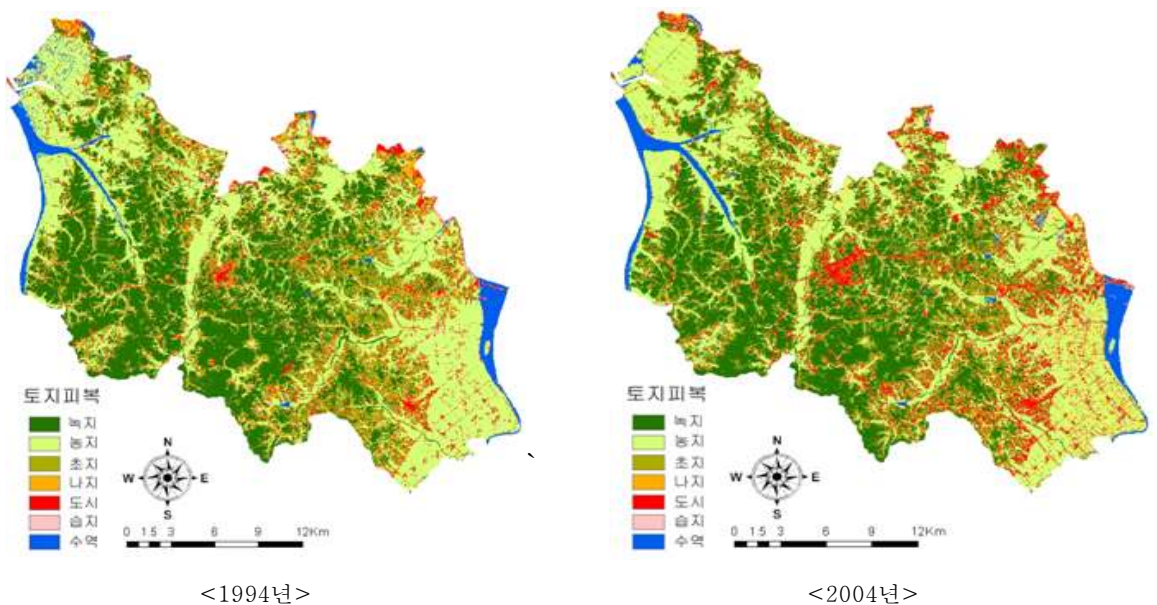
- 인구증가 및 산업시설 증대에 따라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현상을 보임
- 그러나 이에 대한 군차원의 환경용량관리 등이 미흡한 실정임

■ 녹지체계 연계성 미흡

- 당진군 내에는 완충녹지의 조성이 미흡한 편이며,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시가지 내부로 연결되지 못해 산림도시라는 이미지 형성이 미흡
- 가로에 가로수를 식재함으로써 가로경관은 개선되고 있지만 단순한 경관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전체의 녹지체계 연계성은 미흡한 실정임

■ 산림 생태계의 연속성 훼손

- 최근 무분별하게 임목을 벌채하고 밤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산림패치 수가 2,050('94)에서 1,691('04)로 크게 감소하는 등 산림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
- 훼손된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기존 생태자원의 연계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그림 4-2] 토지피복분류도 변화

3) 기회(Opportunity)

■ 환경보전 및 환경자원 가치인식에 대한 지역사회 역량 증대

- 주 5일제 근무의 확산과 고령화 사회 진전, 전원지향적 생활양식의 확산 등으로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정주 및 휴가 공간으로서의 요구가 증대함
- 환경보전과 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인 휴양공간, 생산공간, 생활공간에 대한 군민의 관심인식 확대

■ 생태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 대형담수호, 해양, 산림을 이용하여 문화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가능
- 또한 다양한 동·식물상을 지속적으로 유자보전하여 “Eco-City”의 지역경쟁력 확보 가능

4) 위기(Threat)

■ 산업·도시 개발수요가 증가하여 자연환경 훼손 압력증대

- 산업화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
- 여가관광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여 각종 관광레저 분야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증대함
-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파트너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노력이 필요함